

통계로 본 동물병원 경영 현황

(주)PnV
심훈섭

[강의목표]

우리나라 반려동물병원들의 경영현황을 주요 지표통계를 통해 분석하고 현실적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강의에서는 내원환자(종, 연령, 성별, 품종), 경영실적(매출, 방문환자수), 질병진단 및 진료현황(예방접종, 심장사상충, 검사비율 등)의 현황통계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발전 착안사항을 도출하고, 명확한 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

[통계 개요]

2008년도 국내 동물병원에 내원한 총 67,620頭の 반려동물들의 진료 내역을 집계, 분석한 통계로써, 통계에 반영된 동물병원들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지역 52.6%, 경기지역 28.9%, 기타 지역 18.4% 이다.

[종(Species) 통계]

	頭수 비중	매출 비중	頭당 매출
개	88.45%	92.26%	230,013
고양이	9.41%	7.29%	171,416
기타	2.14%	0.46%	47,206

고양이의 頭당 매출은 개의 두당 매출의 74% 수준에 머물러, 전체 매출에서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7.29%에 머물고 있다. 頭당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수 및 회수를 상승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개에 대해서는 선진국형 건강관리대책 수립이, 고양이에 대해서는 양육 두수 증가 대책과 더불어 전생애 Care 프로토콜을 확립함으로써 급성장하는 시장을 확실하게 주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개(Canine)-연령 통계]

	頭수 비중	매출 비중	頭당 매출
개	88.45%	92.26%	230,013
고양이	9.41%	7.29%	171,416
기타	2.14%	0.46%	47,206

연령분포에 있어서 Adult와 Senior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특히 5세 이상(2003년도 이전 탄생견) 비중이 전체

내원 개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두당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5세 이상 개 환자의 두당 매출이 Puppy에 비해 1.6배에 달한다.

[개(Canine)-성별 통계]

	頭수 비중	매출 비중	頭당 매출
Male	27.76%	22.38%	186,091
Female	46.83%	38.96%	192,037
M.Neuterred	16.66%	21.77%	301,571
F.Spayed	7.77%	16.32%	484,984
Unkonown	0.98%	0.56%	N/A

Female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의 중성화 비율은 24.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화된 개들의 頭당 매출이 비중성화 개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 1.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성화된 개 보호자들의 진료 Compliance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성화 수술 증가는 관련된 비만관련 질환과 수명연장으로 인한 당뇨, 종양, 호르몬 성 질환 등의 노령동물 관련 서비스와 제품으로 연계된다.

[개(Canine)-품종 통계]

	頭수 비중	頭당 매출
Maltese	24.01%	209,200
Shih-Tzu	16.33%	229,156
Yorkshire Terrier	13.20%	214,822
Poodles	8.60%	201,193
Mixed	5.37%	157,638
Schnauzer	4.21%	214,718
Cocker Spaniel	3.94%	291,070
Pomeranian	3.40%	216,575
Pekinese	2.76%	243,712
K.D.(Korean Dog)	2.61%	169,642
Miniature Pinscher	2.08%	175,095

두수 점유율이 2%를 상회하는 상위 11위 품종들이 전체 내원 개의 86.51%를 차지하고 있다. 소형견 품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 2, 3위를 차지한 말티즈, 시추, 요크셔테리어가 전체 내원 개의 과반(5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품종들의 頭당 매출이 전체 개 頭당 매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주요 개 품종의 품종특이 질환에 대한 아이템 개발 등 제공되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고양이(Feline)-연령 통계]

	頭수 비중	매출 비중	頭당 매출
Kitten (~1세)	29.05%	24.96%	147,309
Adult (1세~6세)	59.68%	64.86%	186,272
Senior (7세~)	3.84%	5.37%	239,917

Kitten(1미만)과 1세령 고양이가 전체 내원 고양이의 54.95%를 차지할 정도로 어린 고양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성장 시장의 형태를 나타낸다. 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頭당 매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전생애 Care 표준 프로토콜을 조기에 정립하여 시장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

[고양이(Feline)-성별 통계]

	頭수 비중	매출 비중	頭당 매출
Male	26.34%	22.02%	143,295
Female	31.75%	25.60%	138,196
M.Neuterred	22.67%	29.54%	223,425
F.Spayed	15.22%	21.01%	236,676
Unkown	4.02%	1.83%	N/A

고양이 중성화 비율은 37.88%로 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양이의 경우도 중성화된 고양이들의 두당 매출이 비중성화 고양이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 1.6배에 달하고 있다.

[고양이(Feline)-품종 통계]

	頭수 비중	頭당 매출
K.C (Korean Cat)	38.22%	144,662
Persian	20.16%	178,795
Turkishangora	10.56%	151,987
Siamese	7.28%	145,562
Russian Blue	5.45%	161,924
Mixed	5.32%	134,079
Scottish Fold Cat	2.42%	155,586
American Shorthair	1.80%	160,985
Chinchila	1.46%	199,279
Korat	1.29%	207,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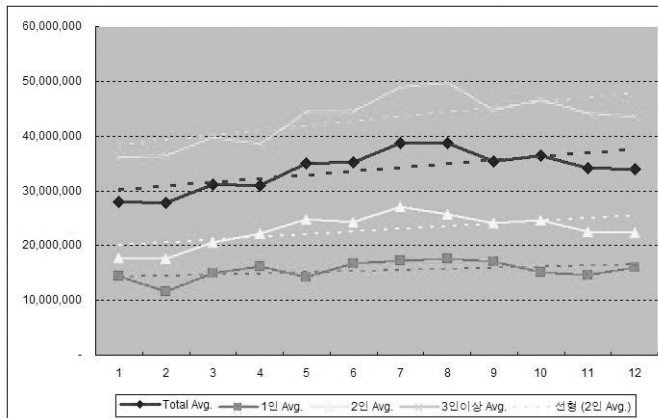
초기 시장인 만큼 개에 비해 품종 다양성이 크게 떨어져 상위 10위 품종이 전체 내원 고양이의 93.97%를 차지하고 있다. 개에 비해 두당 매출도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품종별 매출편차도 크지 않다.

[우수동물병원 경영실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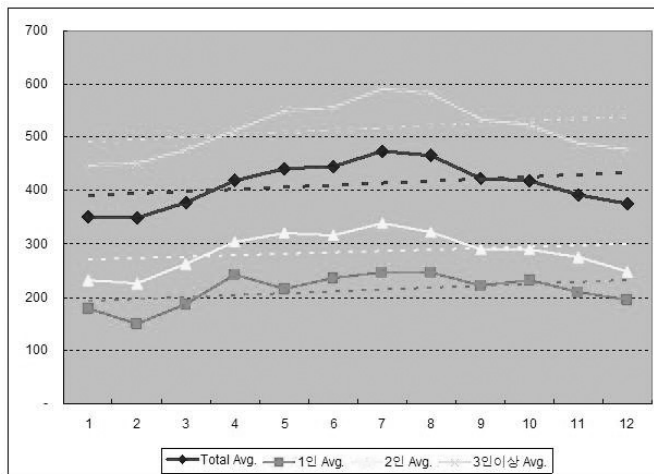
夏高冬低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4계절의 매출이 고르게 변화되어 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계절별로 겨울(12월~2월) 22%, 봄(3월~5월) 24%, 여름(6월~8월) 28%, 가을(9월~11월) 26% 로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보호자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가 전반적 매출상승 및 계절별 매출격차 축소에 기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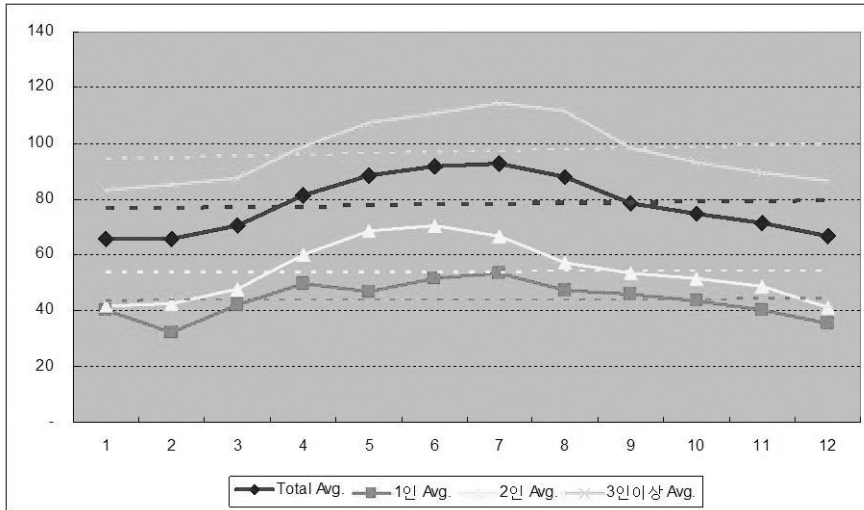
[우수동물병원 경영실적-월별 매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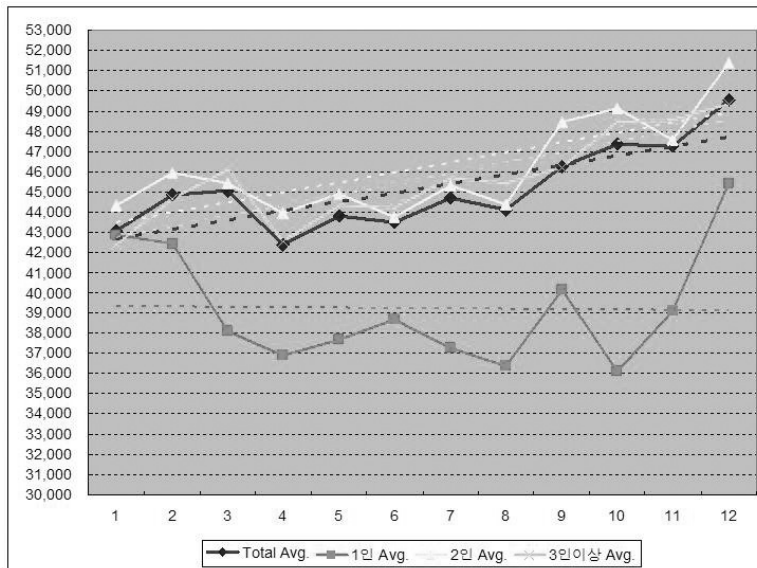
[우수동물병원 경영실적-월별 방문환자 현황]



[우수동물병원 경영실적-월별 신규환자 현황]



[우수동물병원 경영실적 - 건당진료비 현황]



국내 반려동물의 질병진단 통계에서는 피부병 및 소화기계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월등히 높은 반면 환자의 증상만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내재성 질환의 진단율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에서 구체적 질병통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 본다.

더불어, 강의에서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심장사상충 검사, 혈액/키트검사, 방사선/초음파 검사, 처방식 판매 현황통계를 자세히 살펴 봄으로써 국내 반려동물 진료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시도한다.

국내 반려동물 진료현황 통계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주요 착안사항은 반려견의 뚜렷한 노령화, 고양이 시장의 급성장 전망,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Wellness서비스 Compliance 현황 및 Standard Protocol 의 절실한 필요성 등이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착안사항들을 바탕으로 국내 반려동물병원들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명확한 타겟 고객관리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알아본다.

